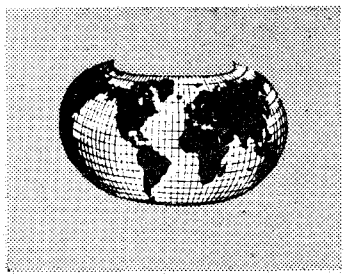

食品은 輸出有望株

金 裕 琿
〈國會 經濟科學 委員長〉

1. 높은 輸出伸張率

內需面에서 國民食生活에 대해 착실한 步調로 寄與 해오던 우리 나라 食品工業界가近年에는 놀랄만한 빠른 速度로 海外各地域에 알맹이 있는 輸出을 크게 擴大하고 있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國內食品工業이 企業化한 것은 8·15解放直後에 屬한 것이어서 30餘年의 歷史를 쌓아 왔을 뿐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그동안에 製品의 多樣化는 더 말할 것도 없고, 施設의 規模, 商品의 質등이 모두 大體로 國際水準에 이르렀다. 한마디로 말해서 長足의 進步인 것이다.

더우기 輸出의 경우는 시작된지 不過몇년의 短期間에 東南亞는 勿論 美·歐洲, 中東, 南美 등 各地域에 걸쳐서 競爭相對國들을 壓倒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輸出이 每年 約 100%씩 躍增하고 있는데 史上記錄的인 輸出成長의 해인 昨年의 總輸出 增加率이 59%이었고 今年의 輸出目標가 25%增加인 사실과 겨누어 본다면 食品輸出 增加率이 극히 異例的인 超高率임을 알 수 있다. 하기는 年間 약 1億弗인 食品輸出額이 年間 80餘億弗(昨年실적) 乃至 100億弗(今年目標) 規模에 達한 우리 나라에서는 比重 큰 存在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①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輸出品으로 登場한 歷史가 짧으며 ② 輸出市場이 그런대로 多邊化하였고 ③ 輸出商品이 多樣化할 뿐만 아니라 ④ 資源節約型에 속한 輸出品이면서 稼得率이 높은 등 여러가지의 點을 綜合해 볼 때 食品이 극히 「有望株」的인 輸出品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旣成의 사실을 據點으로 하여 앞으로는 보다 빠른 速度로 「食品韓國」의 海外活舞臺를 넓혀나가기 위해서는 관계 당국이 食品工業을 국가 기간 산업으로 育成指導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別項들에 依해서 强調하려는 바이다.

2. 「消費產業」이란 誤診

75年度의 食料品 賣出額伸張率이 49%이었다. 賣出額伸張率이 높은 것 부터가 注目되는

바이거니와 輸出額伸張率은 이미 言及한 바와 같이 賣出額伸張率에 倍加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관계 官民이 呼吸을 같이하여 旣成市場을 더욱 깊이있게 또 幅넓게 파고들며 퍼져나가는 한편 新市場開拓에 대한 努力의 끈질김을 보이지 않는다면 輸出伸張率이 고개를 숙이기 쉽다 왜냐하면 先進國民은 勿論·開發途上 國民의 所得增大와 主로 그에 緣由하는 保健思想의 向上 및 嗜好의 變遷이 高營養, 새로운 風味·斬新한 包裝등등을 選好하기 때문이다. 業界가 不斷히 各種의 新製品을 硏究開發해야 하는 絕對的인 理由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① 嗜好變遷이 時間的으로 頻度가 높아지고 그러면서도 사람에 따라서 嗜好를 흔히 달리하여 傾向的으로 多岐化가 이루어져 있으며 ② 高蛋白質食品과 生野菜, 果實, 果汁등을 主原料로 하는 天然食品이 모두 늘어나는 것이 세계 食料品需要의 大勢인데 相對的으로 穀物類를 主原料로 삼는 食料品은 줄어들고 있는 것등을 直視하고 새로운 消費, 패턴에 適應하는 輸出態勢의 再整備·再强化에 失機않는 우리 業界이기를 바란다.

위에서 보아온 바와 같이 食品原料의 穀物依存度가 절대적이었던 時代는 이미 지나갔다 人口增加率이 糧穀增加率을 앞지르고 있어서 온 세계가 장차 닥쳐올 糧穀危機에 대한 두려움을 적지 않게 느끼고 있는 것과 關聯에서 食品原料의 方向修正은 다행 스러운 움직임이다. 그리고 消費者의 嗜好持續期間이 갈수록 짧아져 가는 것 또한 所得增大가 그 背景이다. 食生活에 割愛할 수 있는 可處分所得이 늘어나기 때문에 보다 좋은 食料品에로 選好기준이 바뀌지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가지 附言해야 할 것은 政府施策面에서 輸出食料品에 대한 配慮가 새로워져야 하겠다는 點이다. 즉 輸出食料品의 消費者嗜好가 頻度높게 變遷한다는 사실은 관계 國內業者의 부담 加重을 不可避케 하므로 輸出奬勵政策面에 이러한 사실이 反映되어야 할 일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食品工業에 대한 消費産業」이란 先入觀이 아직 尙存하여 있기 때문에 根源的으로 育成對象業種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矛盾은 早速히 是正돼야 하겠다.

3. 國際인플레 波高와 食品時勢

가트의 「世界貿易 豫備評價報告書」가 최근 公開한 바에 依하면 昨年의 世界貿易量은 比前年 11% 增加이고 金額으로는 달러 換算으로 12%가 늘어난 9천 8백億弗이다. 이는 過去 最高記錄이었던 74年度 보다도 4%가 더 많은 量이다. 그리고 今年度에는 昨年보다 伸長率이 鈍化하기는 하되 계속 增加할 것이라고 展望하였다. 今年의 세계 경제는 ①인플레 ②構造的 調整문제 ③收支不均衡(특히 開途國들)등의 문제점이 提高되어 있는데 작년 下半期以來의 세계 關心事인 인플레 再襲여부에 대해서는 가트가 상당히 樂觀的이다. 즉 主要經濟國들이 穩健한 通貨膨脹政策을 固守하고 있으므로 인플레의 새로운 惡化와 같은 일은 發生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트는 보고 있는 것이다.

가트의 豫測이 과연 的中할 것인가는 앞으로 數個月의 時日(美國 카터 政府와 日本 福田政權의 景氣浮揚策이 나타낼 序曲效果와 인플레의 念慮를 내세우면서 美國이 西獨에 대해 요구한 景氣浮揚策을 일단 拒絕한 西獨政府의 態度推移를 보기 위한 時日)을 두고 봐야만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食料品과 産業用原資材 價格의 加速的인 上昇이 이미 이

록한 安定的인 國際物價를 威脅할 可能性이 짙다는 가트의 指摘에는 주저없는 同感이간다

우리나라 食品業界가 이 같이 국제 貿易商品 중에서 價格上昇率이 특히 높은 品目으로 指摘된 食品을 實利 높은 輸出로 어떻게 밀고 나갈 것인가를 77年의 相當히 比重있는 課題일 수 있다.

食品의 國際市場時勢가 높아져서 有利 해지는 輸出品目이 있는가 하면 그와 反對인 品目도 있게 마련이다. 다시 말하자면 輸出코스트가 그 關鍵인 것이다.

물론 食料品에 局限하지 않은 全體的인 문제이지만 2月의 國內 都賣物價의 上昇率은 2.6%이고 消費者의 그것은 2.3%이다. 이와 같이 國內物價가 急上昇하였는데도 不拘하고 全體輸出入 物價는 0.4%와 0.2%의 各 下落이었다.

舊正盛需期인데다가 콩, 果實類 薯類등의 價格上昇은 勿論, 石炭값등 管理價格의 引上이 2月의 物價上昇을 主導하였다.

결론하자면 國際市場에서의 食品價格 上昇率과 食品의 輸出코스트의 上昇率과의 比較結果가 問題의 焦點이 된다. 그러므로 空間價格의 上昇率隔差가 持續될 要因이 明確한 品目에 限해서 만이라도 選別的인 輸出支援措置가 施策面에서 베풀어져야 할것 같으며 業界의 自律的인 카버策 (生產性昂揚등 經營合理化)도 强化되지 않아서는 안되겠다.

한편 OECD가 조사 발표한 1月 중의 인플레 增加와 食料品價格이 이에 寄與한 바 컸음을 看過할 수 없다. 즉 1月 중 西方工業國들

그런데 지난 1월 引上된 油價는 大部分의 나라에서 1月 消費者物價에 反映되지 않았고 높아진 食料品價格이 급격한 인플레 상승의 의 인플레率은 急增하여 英國의 2.6%를 비롯해서 日本 1.0% 西獨과 캐나다 各 0.9%, 美國 0.6% 프랑스 0.3%등을 例見시키고 있다.

4. 公正去來法과 新製品開發

食品工業이 계속 新製品을 研究開發해야 할 一種의 特殊性은 이미 言及하였거니와 輸出對象이 되는 나라에 따라서 開發方向도 달라진다.

傳統的인 特有한 嗜好의 一面을 살려가면서의 食生活改善이 아니어서는 안된다는 거기에 食品工業界가 지니는 隘路가 있는 것이다. 經濟開發이 比較的 순조로운 開途國에서 많이 볼 수 있는 此等開途國은 어느 편이냐 하면 긴 세월속에 쌓아온 傳統的인 生活文化까지를 깊이 研究해야 하는 課題를 우리 食品工業界에 賦課하고 있는 것이다. 傳統的 食生活文化의 발판에 한쪽발판만이라도 붙어 놓고 營養價 높으며 맛 있고 멋도 풍기는 食料品을 수입해 보려는 그들 開途國消費層은 「溫高知新」格인 慾求의 딜레머에 빠져서 기어코 滿足한 결과를 얻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분명히 韓國食品工業界를 包含한 新製品開發過程의 受難要因이다.

그런데 新製品開發의 內在的인 要因도 새로이 또 하나 생겼다. 公正去來法의 實施에 따라서 主力線 食料品의 많은 部分이 獨寡占品目에 묶여 있기 때문에 新製品開發承認(價格統制)의 制約을 받아야 한다. 輸出과 內需를 莫論하고 필요한 新製品의 開發은 함써 促進시키는 方向으로 公正去來法이 運用되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輸出增進을 위해서는 新製品의 開發이 크게 效率的이고 內需의 경우도 省資源(資源節約)과 食生活의 보다 保健的이고 더한층 經濟的(時間的인 經濟包含)으로의 改善을 위해서 新製品 開發은 장려돼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